2025학년도 보건교사 임용시험 합격수기

■ 수험정보

합격지역		서울 중등	
스터디 활용	여부	0 ** 스터디를 했으면 0, 하지 않았다면 X	
	방법	1차 기출분석스터디 2차 대면 비대면 면접스터디, 전공 면접 짝스터디	
수험생활	형태	일 병행 ** 해당하는 것만 남겨주세요.	인강 ** 해당하는 것만 남겨주세요.
	수험환경	학교 일 병행함. ** 직장병행(간호사, 기간제, 기타..), 육아, 살림 등 병행한 생활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Ⅰ. 머리말

안녕하세요 학교 일병행으로 인해 공부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저와 비슷한 경우의 선생님들께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병행으로 하다보니 공부기간이 길어질까봐 불안도도 높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22년도에 강의를 구매했으나 강의가 너무 밀려서 제대로 복습을 하지 못하고 몰아서 듣거나 강의를 못 듣고 끝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깝고 강의를 못듣고 밀린 부분으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23년도에는 22년도 이론강의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독학을 했었고 기출스터디와 암카스터디만 유지했습니다. 혼자 하다보니깐 늘어지거나 의존도와 불안도가 큰 제가 너무 불안해져서 일하면서 할수 있는 만큼 하자 하고 24년도에 강의를 다시 들었습니다. 일병행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강의를 늦게 구매하기도 해서 밀려있는 상태라 마음이 조급했지만 이번에는 차근차근 하자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고 강의 후에 암카를 확인하여 복습을 하고 학교 끝난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공부시간을 확보하였고 출퇴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암기카드나 외울부분 사진찍은 것을 활용하거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걸어다니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교수님 강의를 그전에도 들었어서 이미 익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변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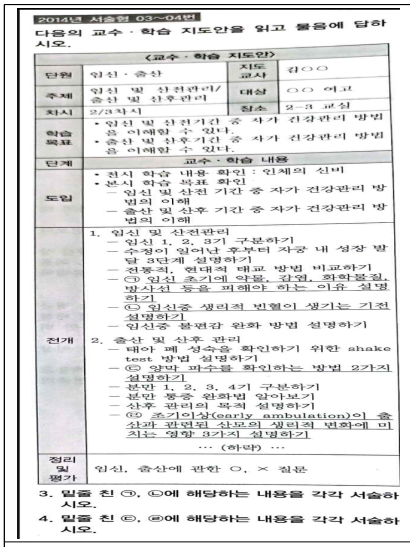
친구들의 추천과 깔끔한 강의력과 강의자료로 인해 선택 했던 것 같습니다.

Ⅱ. 1차시험 학습법 ※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D

1. 시기별

1) 전공

1월 2월	여행 갔다와서 다시 마음 잡고 3월에 시작 (할일 없을 때는 국시정보원? 올라온 간호사 국시, 간호직 문제 그냥 문제 답 문제 답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3월	1-3월 강의가 이미 밀려있는 상태라 제가 부족한 과목이나 부족한 파트만 골라서 선택하여 수강하였고 변화가 있는 파트부분은 강의를 골라서 수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출분석 스터디는 매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기출분석 스터디를 3월부터 시작하여 스터디 쌤들하고 풀었습니다. 매번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시지만 기출확장만 공부해도 합격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년 기출분석 스터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풀긴 했지만... 잊어버리거나 매번 비슷한 부분에서 답안의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반복해서 보다보니 점차 기억이 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처음 기출을 접하는 초수분들의 경우에는 확장문제까지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확장문제는 자율적으로 푸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실시했습니다.)
4월 5월 6월	4-6월 기출 강의는 기출분석표 자료만 활용하고 강의를 듣지는 못했고 4-6월 이론강의에서는 최대한 스케쥴에 맞춰서 커리를 따라갔고 요약강의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1-3월 이론강의가 아직 기한이 남아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된 1-3월 기본강의를 들어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배속으로 들으면 힘들지만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강의는 배속으로 들었습니다. 1-6월 암카를 활용하여 출근할 때 찍어서 들고 가거나 낱장으로 챙겨서 출퇴근 시 활용하였습니다. 아침 출근 시 일찍 도착하면 기출분석 스터디(3월~10월)의 당일 올라온 문제와 확장문제를 제가 아는 선에서 풀어보고 일이 끝나면 집에가서 관련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이론서를 챙겨서 보거나 답을 확인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암카를 보기 싫거나 할 때에는 유튜브에 보건임용관련 정리를 해놓은 유튜브 영상이나 1-4급 감염병 노래 영상, 목발순서 영상 등을 시청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이 밴드에 열어주시는 응용문제 과제에서 나오는 문제는 기출분석책에 표시해서 추후 기출분석 책을 볼 때 관련부분을 한번씩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임수진 교수님이 주신 기출분석 확장표도 스터디에 적극활용함) 책을 이쁘게 정리하거나 적는 성향이 아니였지만 22년도에는 책에 기출표시 암카표시도 스티커로 붙여서 공부했었고 관련 부분이 정말 회독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은 인지되었으나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 지구색연필을 가지고 관련부분에 체크표시하여 중요도 암카 형성평가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2014년 서술형 03~04번

다음의 교수 · 학습 지도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수 · 학습 지도안〉

단원	임신 · 출산	지도 교사	김○○
주제	임신 및 산전관리/ 출산 및 산후관리	대상	○○ 여고
차시	2/3차시	장소	2-3 교실
학습 목표	• 임신 및 산전기간 중 자기 건강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출산 및 산후기간 중 자기 건강관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단계	교수 · 학습 내용		
도입	• 전시 학습 내용 확인 : 인체의 신비 • 본시 학습 목표 확인 — 임신 및 산전 기간 중 자기 건강관리 방법의 이해 — 출산 및 산후 기간 중 자기 건강관리 방법의 이해		
전개	1. 임신 및 산전관리 — 임신 1, 2, 3기 구분하기 — 수정이 일어난 주부터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 설명하기 — 전통적, 현대적 태교 방법 비교하기 — ㉠ 임신 초기에 약물, 감염, 화학물질, 방사선 등을 피해야 하는 이유 설명하기 — ㉡ 임신중 생리적 변형이 생기는 기전 설명하기 — 임신중 불편감 완화 방법 설명하기 2. 출산 및 산후 관리 — 태아 폐 성숙을 확인하기 위한 shake test 방법 설명하기 — ㉢ 양막 파수를 확인하는 방법 2가지 설명하기 — 분만 1, 2, 3, 4기 구분하기 — 분만 통증 완화법 알아보기 — 산후 관리의 목적 설명하기 — ㉣ 조기이상(early ambulation)이 출산과 관련된 산모의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가지 설명하기 … (하략) …		
정리 및 평가	임신, 출산에 관한 O, × 질문		

3.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4.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

수업지도안에 도입전개정리에 들어갈 내용은?

- 임신 1 2 3기 구분하기
- 수정이 일어난 후 자궁 내 성장 발달 3단계는?
- 태아 폐성숙 확인하는 방법 2가지와 설명 제시
- 분만 1.2 .3.4 기 구분하기
- 유산 종류 적어보기

1. 출혈량은 약간이고 자궁수축 경함 자궁 내구 닫힘 임신유지 가능( )
2. 출혈량이 심하고 자궁수축도 심함 자궁내구 열려있으며 일부 태아산물 배출있음 ( )

-> 기출지문에 있는 문제에 답을 달아보거나



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실시한 고혈압 예방 교육에서의 교사의 학생 간 대화 내용이다.

고혈압 단계별 분류

고혈압 치료 지침(혈압,DM,신장질환등)

ACEI/ ARB 약제 기전?

ACEI 약제 부작용 마른기침이 발생하는 이유?

추1 ㄱ 수술 시 생리적변화 상태는?

추2 다음 난소종양의 명칭은?

난소주기가 hcg의 과도한 자극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포상기태나 융모상피암이 있을때 자주동반됨

추3 다난성 난소낭종의 원인과

클로미펜과 브로모크립틴 투여 이유는?

6. 다음은 보건 교사와 등료 교사와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유피낭종(Dermoid cyst)에 대해 순서대로 기술하시오. [5점]

등료 교사: 선생님, 언니가 난소에 혹이 있어서 3일 전에 수술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보건 교사: 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등료 교사: 복강경으로 오른쪽 ㉠난소설상(쐐기)절제술을 받았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 걱정을 많이 해요.
보건 교사: 혹의 종류는 무엇이었는데요?
등료 교사: 유피낭종이라고 하는데 ㉡혹 안에 머리카락, 치아, 뼈가 들어 있었대요.
보건 교사: 유피낭종일 경우 보통 양측으로 오는데 한쪽 난소에만 있었군요. 일반적인 혈액검사 말고 다른 검사는 어떤 것을 받으셨어요?
등료 교사: ㉢골반 초음파와 혈청 CA-125 검사를 받았다고 했어요.
보건 교사: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등료 교사: 네, 검사 결과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퇴원할 때 의사가 ㉣하복부에 급성 통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라고 했대요.
보건 교사: 네, 그렇군요. 빨리 쾌유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등료 교사: 고맙습니다.

<작성 방법>
○ ㉠ 수술의 기대 효과를 서술할 것.
○ 유피낭종에서 ㉡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서술할 것.
○ ㉢의 검사를 시행한 목적을 서술할 것.
○ ㉣처럼 말한 이유를 서술할 것.

7. 다음은 보건 교사와 민호(고 3, 남)와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5점]

보건 교사: 민호는 밝고 쾌활했는데,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일이 있어요?
민 호: 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몸이 떨리고 질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다시 생길 것 같아 두려워 자려고 할 때면 불안해서 쉽게 잠을 들지 못해요.
보건 교사: 언제부터 그랬어요?
민 호: 두 달 정도 됐어요.
보건 교사: 힘들겠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특별한 상황이 있나요?
민 호: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겠어요.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보건 교사: 그래요. 그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지속되나요?
민 호: 10분간은 지속되다 서서히 사라져요.
보건 교사: 그래서 병원에는 갔었나요?
민 호: 네, 한 달 전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엄마랑 응급실에 갔었어요. 여러 검사를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이)라고 했어요.
보건 교사: 그랬군요.
민 호: 참, 병원에서 알프라졸람(alprazolam)이라는 약을 주었어요. 약을 먹다가 내 맘대로 갑자기 약 먹는 걸 중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보건 교사: 그 이유는 (㉡) 때문이에요.
민 호: 네, 약 먹는 동안은 조심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빨리 나아서 입시 준비도 해야 하는데 약물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치료법이 있나요?
보건 교사: 백(A. Beck)의 인지치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과국화(catastrophizing), ㉣선택적 추론(selective abstraction) 등과 같은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거예요.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임상 진단명을 쓰고, 관련 증상 1가지를 위 대화문에서 찾아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 ㉢과 ㉣의 개념을 서술할 것.

추a ㄱ과 관련있는 신경전달물질은?
추b 예기불안이란?
추c 빈칸 채우기
공황발작 dsm B 적어도 ( )의 발작 이후에 다음중 하나 또는 두가지가 ( )간 뒤따른다
1. ( )
2. ( )
추d 알프라졸람 의 기전은?

이런식으로 기출분석을 거창하게 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기출문제 자체를 풀거나 그 안에서 확장 추가문제를 스터디에 출제하여 학

	습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일병행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는 없어서 22년도 모의고사 풀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7-8월 모의고사에서는 주로 기출의 변형되어서 있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문제를 한번 눈으로 보고 모르겠는 문제를 표시하고 문제를 한쪽에 2면 인쇄로 하여 문제 해설지에 문제를 붙여서 문제 답 문제 답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회독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은 9-11월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하였고 7-11월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답안 확인 후에 이해가 안가거나 해설강의를 들어야하는 항목만 넘겨서 들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자료의 정리집을 방학이나 쉬는 날을 활용하여 한번씩 다시 확인하였고 이때 이론서에 없는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때도 기출 확장 스터디는 그대로 유지하였고 10월 중순까지 기출스터디를 유지하였습니다. 방학을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특강 강의를 듣고 복습했고 특히 법규특강에 받은 자료를 스캔을 떠서 필요한 부분을 태블릿으로 가리고 빈칸을 확인해보는 용도로도 활용하였고 출퇴근시에 암카나 유튜브 영상 법률어플을 활용해서 캡쳐해놓은 중요한 법률 부분은 출퇴근시 반복하여 확인했습니다. 또한 일병행이다 보니깐 학교에서 근무할 때 만드는 가정통신문이나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는 공문이 온다면 임용문제를 생각해보면서 공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1)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 몇 급, 주요증상, 치료, 진단, 예방법 등 생각해보고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였고 2) 예방접종의 공문이 온다면 -> 초등학교/예방접종 확인 해야하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시기? 3) 학생건강검진 실시한다면 -> 어떤 항목, 허리둘레 위치, 척추측만증 진단법 등 4) 학생이 복통 호소 -> 충수염 진단 기준 생각해보기 등 학생 처치하면서 기존 이론서 내용 생각해보는 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11월	**- 종강까지 공부와 종강 후 마지막 공부** 커리큘럼대로 실시하였으나 일병행이다 보니 회독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회독표의 많은부분까지는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색별로 표시한 색연필로 색칠한부분 집중으로 회독하고 모의고사 7-8월 정리본을 다시 추가 회독, 암기카드 회독 응용문제 밴드 표시한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기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회독시에 잘안외워지는 부분은 저만의 용어나 기출표현을 확인하여 키워드를 기재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2) 교육학 ※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D

1월 2월	교육학은 22년도에 ㄱㅈㅅ교육학 단권화를 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병행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행정, 과정을 집중으로 회독하고 평가, 방법 심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를 차순위로 두고 회독하였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에 유튜브를 활용하여 교육학 강사가 강조하는 부분을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였고 교육학 키워드만 따로 표시하여 낱장으로 들고다니면서 학습하거나 녹음 파일을 활용하여 출퇴근시 학습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전공에 비중보다 교육학의 비중이 적으므로 저는 일병행으로 교육학의 비중을 줄이고 전공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2. 과목별 ※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D

학교보건 지역사회	학부와 지사는 시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했던 파트입니다. 법이 특히 너무 힘들었어서 기출스터디 확장문제에서 법규관련 문제를 출제하거나 법률어플이나 법규특강자료를 스캔한 부분을 태블릿을 이용하여 빈칸채우기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부분에서 1-4급은 유튜브 감염병 노래를 활용하였고 지역사회 이론 관련 부분은 기출스터디 및 암카를 활용하여 학습했습니다.
아동간호 응급간호	아동과 응급은 기출표시부분과 국시문제인 자료 확장문제부분을 활용하여 부가적인 부분을 학습하였고 응급은 실제 학교에서 일을 할 때 많이 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서 학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사고 상황을 기준으로 학습하였고 학생들 처치하는 과정에서도 머릿속으로도 이론서 관련부분을 생각하면서 학습하였습니다.
성인간호	성인간호는 특히 양이 많고 병태생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과목입니다. 1차시험도 두괄식에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론서 회독시 관련부분에 중요한 키워드를 표시하고 기존에 용어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안외워지는 진단기준이나 증상은 교수님 청킹을 활용하여 암기하거나 그림으로 가시화하여 학습하였

	습니다.
모성간호	모성간호와 정신간호 출제비중이 많이 증가한다고 생각이되어서 개인적인 우선순위로는 학보지역>모성 정신>성인>응급 아동으로 하여 학습의 비중을 하였고 모성이나 정신은 기존 기출 부분이 많이 부족하여 제공해주신 국시문제 파트별 문제를 풀어 학습하였고 기출분석 스터디에서도 특히 모성과 정신은 확장문제를 많이 파악할수 있도록 확장문제를 출제하여 스터디원들과 학습하였습니다. DSM5-TR로 변경되고 나서 미니 핸드북을 활용해서 교수님 청킹 + 저만의 청킹을 활용하여 학습하였고 특히 앞부분에 목차도 함께 빈칸 채우기 학습을 통해 목차를 구조화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신간호	

Ⅲ. 2차(면접) 학습법 ※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D

1차 합격자 발표 전)
일병행이여서 대면스터디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작년 합격자 선생님이 1차 합격 후 준비하면 너무 늦어진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1차 시험 후 2-3일 쉬는시간을 가지고 바로 월수금 비대면 비교과 스터디와 화목 시책 보건스터디를 실시하였습니다.

- 월수금 비대면 비교과 스터디

  영양2, 보건1 오후 5~8시까지 스터디를 실시하였고 이때는 주로 면접레시피 이론서 회독 후 이론서 안에 있는 기출과 예상문제를 스터디 쌤들하고 학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면접형식을 바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점차 실전에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의 형식으로 문제에 기존 준비시간보다 시간제한을 더 활용하여 학습을 실시했습니다.

- 화목 시책 보건스터디 (시책사업의 서울시만의 명칭, 시책사업으로 기대하는 효과, 시책 내용에 보건과 연계해서 나올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시책을 실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관련 내용 찾아보기 등)

  보건선생님과 함께 시책에 파트별 어떤식의 예상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파악하고 그에 관련한답안 생각해보고 나눔하기를 실시
두 스터디 모두 대면스터디는 못하여고 1차합격 전까지는 네이버 웨일이나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활용하여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 쌤들끼리 부족한 부분을 한 개씩 채워서 단계적으로 고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시기에 대면스터디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서울 교육 책자 회독, 보건면접과 관련된 책, 대한민국 교육 트랜드 책, 미래교육 플러스(성, 인성, 안전 보건교육 편) 시청하였고 유튜브 보건장수쌤, 역시 호쌤,

JJSooZbee쌤, 트윙클쌤, 웬디쌤(평가원) 및 보건면접유튜브를 운영해주시는 선생님들 영상을 이동이 많을 때 활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1차합격자 발표 후)
부득이하게 스터디 원들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새로 스터디를 구해야하는데 일병행이다 보니 스터디를 구하는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터디원을 구하기 위해 직접 글을 남겨서 모집하였고 스터디 선생님들의 배려로 방학 전까지는 비대면으로 학습하다가 방학 후에 대면으로 스터디를 변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책상이 있는 스터디룸을 빌려서 해당 스터디카페에서 주로 대면 면접스터디 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면스터디의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격자 선생님들께 따로 부탁드려서 면접영상을 촬영하여 직접 보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월수금 / 화목토 비교과 면접스터디 실시 (기출 회독, 실전모고 회독, 자체 출제문제 실시 하였고 이때는 항상 실전문제 세트에 맞추어서 면접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태블릿으로 시간어플로 서울시 시계 다운으로 세팅하여 연습하였고 가급적 책상배치도 면접실 느낌 나도록 책상 구조를 바꿔서 연습하였습니다. (스터디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 기출문제는 밴드로 올리고 풀어보기를 과제로 학습함)

- 월-금 보건임용 전공스터디 (오전 또는 오후 짧게 실시)
서울은 전공관련 처치나 업무 문제 수업실연이 구상형, 추가질문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다른급의 보건쌤이나 타지역 보건쌤과 함께 스터디를 구성하여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상의 응급처치 상황은 응급처치 마스터 또는 서울보건메뉴얼에 있는 질환을 위주로 문제 출제하거나 기존에 있는 서울 보건전공문제를 변형하여 스터디를 실시함. 이에 대한 답안을 서로 말해보고 그에 관해 피드백 후에 보안해서 자신만의 만능답안을 정리해서 올리는 스터디를 실시함. (제시문의 사례는 서울시 블로그에 올라오는 안전 사고 사례나 응급처치 마스터 책의 사례를 변형하여 출제함.

구상형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B학생이 체육수업후 쉬는시간 친구가 가져온 간식을 먹고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는 없으나 외견상 목부위와 상체에 다수의 발적과 두드러기가 관찰되었다. (학기초 땅콩알레르기 병력 확인)

1-1) B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처치방안을 제시하시오.
1-2) B학생이 안면발적, 부종,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창백한 피부에 혈압은 100/60-106 f/u 85/62-120이고 산소포화도는 90~95%이다. B학생에게 사전에 에피네프린 주사가 있는 상태이다. B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처치방안을 제시하시오.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구상형 1)해당영역에서 수업주제를 1가지 선택하고 전개 부분을 시연하시오

구상형 2)

1학년 학생 학부모님에게 학교를 통해서 전화가 왔다. 학교 건강검진을 방학에 실시하였는데 활동성 결핵

이 의심되어 보건소에서 추가검사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연락받았다.

1-1)다음에 상황에 대한 보건교사로서 대처방법을 말하시오.

1-2) 활동성 결핵과 잠복결핵의 차이를 말하고 잠복결핵 양성이 나온 선생님이 화들짝 놀래서 보건실에 왔다. 그에 대한 보건교사로서 대처방안을 말하시오.

1-3) 한학급에서 2급 감염병(백일해, 홍역 등)이 2인이상 발생하였다. 그에 대한 대처방법을 말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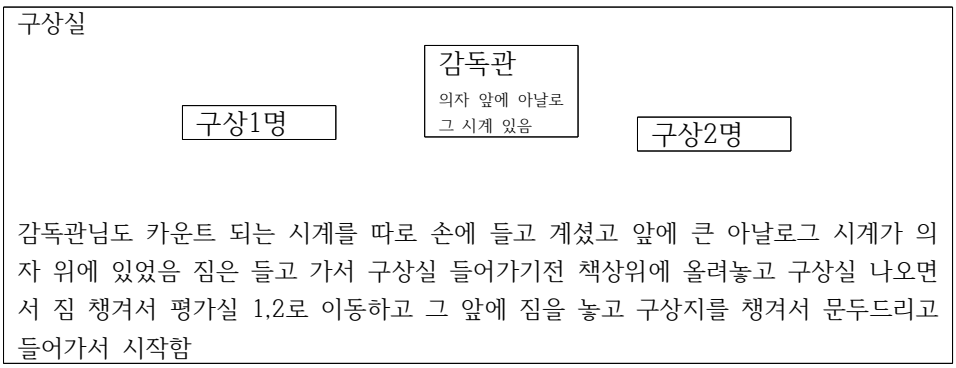
- 수업실연이 구상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므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지도안을 찾아 어떠한 활동으로 수업지도안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수업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함. (마약,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안전교육 등)
- 기타

헤어와 메이크업을 잘하지 못해 따로 받을까 고민 하다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헤어 메이크업을 따로받지 않고 제가 직접 화장하고 머리망을 한 상태로 면접을 봤었고 면접장에 머리모양은 포니테일 단발 머리망 등 다양했고 다들 깔끔하게 준비하셔서 오셨습니다.

정장은 그전 병원면접때 정장을 활용하였고 치마만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기존 가지고있는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색이 약간 차이가 있으나 크게 눈에 보일 정도가 아니여서 바지 정장으로 입고 면접을 봤습니다. 구두도 소음 쿠션 적용하였는데 크게 변화는 없던 느낌?이였습니다.

- 즉답형과 추가질문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스터디원분들과 남는 시간에는 랜덤으로 면접관련 문제를 출제하여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에 감독관이 시간을 알려주고 카운트 다운이 세팅되어있으나 안보일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시간에는 손목시계에 시계를 11시 45분으로 맞추어 연습하고 실전에서도 해당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스터디 연습시 기존 구상시간보다 시간을 줄여서 연습하여 구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면접장에 들어갈 때 시간이 부족할 때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간이삼각대를 설치하여 스터디 선생님들 영상을 촬영하여 참고할 수있도록 하고 아이패드의 시계어플을 활용하여 시계 다운을 세팅하고 면접연습을 실시했습니다.
- 특히 서울의 경우는 면접 감독관이 들어오면 안내 후에는 책 및 다른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아무것도 보거나 확인할수 없어서 가급적 최대한 앞번호를 뽑거나 뒷번호를 뽑은 경우에는 머리 속으로 시물레이션 돌리거나 잠깐 쪽잠을 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 간식으로 포도당 캔디, 초콜릿, 짜먹는 죽과 호올스를 가지고 갔고 잔여기침으로 인해 목이 아파서 생강캔디를 구매하여 함께 챙겨갔습니다. 아침에 한마디도 안하다가 면접장소에 들어가서 갑자기 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이 안풀려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나 아니면 면접장소 이동 중에 말을 해서 가급적 입을 사전에 풀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불안도가 높아서 스터디 때도 인데놀을 먹어보고 연습을 실시했었는데 실전에서는 더 긴장해서 그런지 약효과가 개인적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면접(면접실에 처음 갔을 때에도 수험번호 별 좌석이 지정되어 있었고 관리번호를 뽑은 뒤에 그 해당 번호 위치로 가서 앉았음. 서울의 경우에는 반절 잘라서 양쪽 시작번호가 함께 들어감 (예를들어 1-20번까지 관리번호면 1-10 11-20 첫 번째 순서에 1, 11번이 들어갔습니다.) 구상형1실에서 2명이 들어가서 구상을 했고 각각 평가실1, 평가실2로 들어갔습니다.)



감독관님도 카운트 되는 시계를 따로 손에 들고 계셨고 앞에 큰 아날로그 시계가 의자 위에 있었음 짐은 들고 가서 구상실 들어가기전 책상위에 올려놓고 구상실 나오면서 짐 챙겨서 평가실 1,2로 이동하고 그 앞에 짐을 놓고 구상지를 챙겨서 문두드리고 들어가서 시작함



면접관 3 선생님께서 남은시간 3분 남았을 때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Ⅳ. 기타 합격 노하우 ※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작성해주세요!! :D

ㅁ 나만의 학습법: 특별할건 없지만 기출분석 스터디를 꾸준히 하였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이 해주시는 기출분석 이외에 밴드에서 기출분석 스터디를 꾸준히 참여하였습니다. 스터디원들끼리 기출문제를 두고 어떠한 확장형 문제까지 나올수 있는지 생각하여 문제를 만들어보고 스터디 원들과 함께 풀어보는 스터디를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일병해을 하다보니 동영상 강의를 볼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문제 답 문제답으로 볼수 있도록 세팅하여 먼저 문제를 눈으로 보고 답을 생각해보고 바로 실제 답을 보고 내가 생각한 답과 맞는지를 보고 틀리거나 이해가 안가는 문제의 부분만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동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더라도 녹음 파일이나 유튜브에 있는 임용관련 영상을 시청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학습을 하였습니다.
일을 할때도 가정통신문을 만들거나 학생처치를 할 때 임용관련된 내용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ㅁ 멘탈 관리(불안 관리 등): 멘탈관리가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공부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일을 하면서 하다보니 남들보다 뒤쳐진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도움을 받은 분들은 임수진 교수님, 주변 친구들, 스터디원들이 였습니다. 일하면서 임용을 준비하기까지 막막한 심정을 교수님께서 일병행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공부방법을 조언해주셨고 주변 친구들이 시험을 도전하는 것을 항상 할 수 있다고 느낌이 이번에 좋다고 말해줘서 저에게 용기를 주고 같이 합격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하는 스터디 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자극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ㅁ 슬럼프 극복:
주로 미래를 상상해서 희망회로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공부함으로 인해 못한 것들을 1차 시험 끝나면 다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여기서 합격까지 하면 임용 공부도 끝이다. 생각하였고 만약 안되더라도 어차피 그만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더 한결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시험 끝나자마자 합격여부 보지도 않고 주변에 임용서적을 다 나눠줬습니다.) 일하면서 하다보니 시간에 정말 쫓기기 마련이였는데 오늘 일하다보니 도저히 공부할 컨디션이 아니네 이럴 때에는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깐 보상이 필요한가보다 하고 쉬는 날을 정해주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전환을 하였습니다.

ㅁ 체력 관리: 체력관리가 솔직히 제일 힘들었습니다. 체력저하로 인해 각종 영양제를 엄청 챙겨먹었습니다. 또한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려서 골골거리고 조금이나마 아픈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그랬습니다. 공부 초반기라면 운동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뒤로 갈수록 체력이 정말 중요하며 내가 얼만큼 보고

점검했는지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력관리를 미리하고 몸에 좋은 영양제(아르기닌, 마그비 등)를 챙겨서 드신다면 공부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차에서도 감기에 한번 걸리면 다른 스터디원에게 피해뿐만아니라 짧은기간에 면접준비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ㅁ 생활 관리

- 수면시간: 보통 6-7시간정도 수면, 일하고 오면 밤에 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밤에 집중력을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시간은 아침인데 그시간때에 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고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부족하므로 저녁시간에 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잠을 더 줄이기에는 직장에도 영향이 가므로 수면시간을 더 줄이지는 않고 주말에 조금 더 자고 정 피곤하면 낮잠으로 수면을 보충하였습니다.
- 휴대폰: 휴대폰 잠금 어플을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관리가 안되는 어플은 지웠습니다. 최대한 휴대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 멀리 떨어뜨려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자주 볼때도 카톡을 통한 깜짝 문제 스터디를 보거나 임용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SNS 사용안함, 얼마나쓰니?라는 휴대폰 잠금어플 사용함)
- 문화생활: 문화생활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 친구만남: 상반기에는 한두번 만났으나 그뒤로는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공부 안될 때 친구와 전화하여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했습니다.
- 가족모임: 가족외부모임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갈때에는 스트레스 푸는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맛있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장거리 가족 모임이나 가족 여행 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Ⅴ. 맺음말

특별할게 없는 합격수기이지만 저는 임용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분석스터디는 꾸준히 참여해왔고 주변에 보건임용을 준비하는 분들께도 기출스터디를 강조해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초수나 처음이 스터디를 해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막막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는 임수진 교수님 기출분석책을 활용하여 문제를 변형해서 생각해보거나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출 확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출문제를 잘 알고 있나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봤던 기출문제도 다시한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임용시험은 장기과정이어서 떨어지면 다시 1년의 준비가 필요하니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는 것이 임용시험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겨내셔서 하루 빨리 동료교사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파이팅 입니다!!.